

[순모임 교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16-21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유산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1. 바울은 첫번째 기도제목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17절).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에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이 알도록 기도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바울은 두번째 기도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18절).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3. 바울은 세번째 기도제목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19절).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20-22절) 능력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작게 보인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17)